

사진으로 하는 '인문학 놀이'로의 초대

사진이 묻고 철학이 답하다

이광수·최희철 지음



프랑스 조세프 니세포르 니엡스가 장장 8시간의 노출을 주며 최초의 사진을 찍은 때는 1826년이다. 190년이 흐른 현재 현대인들은 1초를 수백, 수천 분의 1로 잘라내는 '찰나'의 이미지 홍수 속에 빠져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의 손에 카메라가 들려 있는 셈이다. 카메라 렌즈는 인간의 또 다른 눈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최근 나온 '사진이 묻고 철학이 답하다'는 사진찍는 인문학자와 철학하는 시인이 사진 한 장을 같이 들여다 보며 대화를 나누는 인문학 향연(饗宴)이다. 셔터를 누른 이광수 부산외국어대 교수는 인도 근대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이자 사진비평가이고, 최희철 시인은 원앙어선과 상선 항해사로 일하다 닭 잡아 파는 일을 생업으로 삼은 '베르그송 주의 생(生) 철학자'이다.

사진가와 시인은 '그저 세상살이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과 '카메라의 해방성'을 화두(話頭) 삼아 사진을 얘기한다. 또 두 사람은 찰나 속에 숨어 있는 삶의 단편을 손에 쥐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쫓고 쫓고 뒤 남는 것을 파악한다. 대화의 재료는 이 교수가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찍은 45점의 사진. 엽서 같은 예쁘고 아름다운 풍경사진이 아닌 '종교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진들이다. 한 사진을 놓고 셔터를 누른 '사진가가 본 세상'과 '시인이 읽은 세상'으로 나눠 달리 해석한다. 사진자에게 사진이란 '항상 시간에 대한 사유'이고, 시인에게 카메라란 '근대의 발명품임에도 고대적 사유를 하는 기계장치'이다.



사진찍는 인문학자는 사진으로 인문학적 사색의 향연을 펼칠뿐 아니라 그 '생각'을 다른 이와 같이 나눠보고자 한다. 이광수 부산외국어대 교수가 2015년 인도 델리에서 찍은 '밭에서 꽃이 피는 그 욕망을 보라'.

죽은 이의 발을 꽃으로 장식하는 여성을 포착한 사진을 들여다보자. 사진가는

“...너의 정성 안에 도사린 너의 욕망을 보지 못하면 세상은 너를 겁박할 뿐이다. 세상이 네 앞에 보이듯 보이지 않듯 자유롭게 유행하게 하라. 그것을 찍고 싶었다”고 말한다. 시인은 “...향기 앞에 정성을 다해 고개를 숙일 때 자신뿐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손도 감각도 향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향기는 그 어디에도 머무르는 법이 없이 소문처럼 바람을 타고 퍼져나간다. 속(俗)이 성(聖)으로 전화되는 순간이다. 그때 밭에서 꽃이 핀다”고 평한다. 이 교수는 책을 엮으며 “사진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찍었는데, 철학하는 시인은 저런 생각으로 보았구나, 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사

진으로 하는 삶과 인문학 놀이에 독자들 도 주저 없이 끼어들어 한바탕 신명나게 놀아봤으면 한다”고 독자들을 이끈다. 시인 또한 나가는 글을 통해 “사진 역시 시와 마찬가지로 ‘말하기’ 방식중 하나일 것이다. 다만 사진은 복제의 힘과 속도가 다르다. 하지만 사진 역시 시와 마찬가지로 슬프거나 웃기고, 거룩하거나 추위를 타고, 거지 같거나 빛처럼 반짝인다”고 사진의 의미를 밝힌다. 사진을 너무 쉽게 찍고, 지워버리는 디지털 영상시대에 이 책은 사진의 진정한 가치와 무게를 음미할 수 있도록 사유의 폭과 깊이를 확장한다. <알레·1만5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설득과 비판=고대 희랍 철학의 원전 번역에 매진해 온 김철용 교수가 호메로스부터 소피스트들에 이르기까지 철학 담론 전통을 관통하는 정신을 '설득과 비판'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분법과 배타성을 넘어서는 진지한 유희의 아근 정신을 계승한 소피스트-소크라테스 전통을 재조명하여 우리 담론 문화의 혁신으로 이어 갈 방안을 제시한다. <후마니타스·2만3000원>

▲봄철 한정 딸기 타르트 사진=요네자와 호노부의 대표 시리즈로 꼽히는 학원 정준 미스터리 '소시민' 시리즈 첫번째. 참견하기 좋아하는 고바토와 집념이 강한 오사나이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특별한 관계로 묶여 있다. 단순한 친구 관계도, 연인 관계도 아닌 두 사람이 지향하는 것은 일상의 평온과 안정을 위해 소시민이 되는 것. 그런 두 사람 앞에 등장하는 갖가지 수수께끼들. 고바토와 오사나이는 소시민이 되겠다는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을까? <엘릭시르·1만3500원>

▲정관정요=군주가 신하들과 나눈 치열한 정치 토론의 기록, '정관정요'. 중국의 가장 빛나는 황금기를 이끈 당태종 23년 치세 동안의 정치 토론 기록이다. '정관정요'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하는지, 군주와 신하가 서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군주와 신하 간에 치열했던 문답을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 소통하는 리더십을 꿈꾸는 이들이 꼭 읽어보아야 할 필독서다. <휴머니스트·2만8000원> ▲바디무빙=소설가 김중혁의 다섯번째 에세이. 이번 키워드는 '몸'이다. 인간



의 몸이란 무엇인가. 개개인의 가장 가까운 세계인 동시에 광활한 외부세계를 받아들이는 첫 관문이다.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커져 쌓인 가장 비밀스럽고도 흥미로운 장소이기도 하다. 책에 수록된 32편의 글은 영화와 스포츠, 드라마, 책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문화 콘텐츠와 현상에서 발견한 소재들로 인간의 몸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보여준다. <문학동네·1만4000원>

▲성공의 가치 좌절의 가치=2019년 노무현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앞두고 구성된 답사단인, 8박 10일간 루스벨트, 존 F. 케네디, 조지 W. 부시, 링컨, 레이건, 닉슨 등 여섯 명의 대통령기념관과 열두 곳의 기념 시설 및 박물관을 방문했다. 여러 대통령 기념관들의 건물에서, 공간과 구성에서, 전시기법과 전시물에서, 이미지와 키워드를 관찰하고 그 안에서 노무현과 노무현 시대를 투영하고 대입한다. <생각의 길·1만5000원>

나무학자와 시각장애인의 특별한 나무여행

슈베르트와 나무

고규홍 지음



이 책은 저자가 김씨를 처음 만난 때인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0개월 동안 진행된 나무 답사 과정을 담고 있다. 한번도 나무를 본 적 없는 김씨에게 나무는 두 가지 이미지였다. 좋은 공기를 주고, 초록 그늘과 윙터를 만들어 주는 좋은 이미지와 함께 나뭇가지에 얼굴을 찡그러지거나 부딪치는 경우가 많아 '장애물'로 여겨지기도 했다. 첫 만남 후 두 사람은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 동안 계절에 따른 나무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했다. 숙명여대 캠퍼스, 김여지의 여주 시골집, 괴산 오가리, 천리포수목원 등 도시와 시골, 수목원을 오가며 느티나무, 벚꽃, 치자

나무, 자귀나무, 낙우송 등 다양한 나무를 함께 만났다. 나무의 가지, 줄기, 열매, 잎, 뿌리 등을 만지고, 듣고, 맡고, 맛보며 서로의 느낌을 공유했다. 2015년 11월 세종문화회관 챔버홀에서 열린 특별한 음악회는 인상적이다. 김여지의 슈베르트 연주와 고규홍이 촬영한 나무 영상이 어우러진 '나무영상 연주회'다. 책을 읽고 나면 가슴이 따뜻해진다. 연주 레퍼토리였던 슈베르트의 '즉흥곡'을 찾아듣게 되고, 무엇보다 늘 우리 곁에 있는 '나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두 사람이 체험한 나무와 꽃에 대한 개별 설명을 담은 코너를 길러잡이 삼아 길을 떠나도 좋을 듯하다. 두 사람의 1년 간 기록은 지난 11월 EBS 1 TV 다큐프라임 '한반도 대서사시-나무' 제 3부 '슈베르트와 나무'를 통해 방영됐다. <휴머니스트·1만6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은 지금까지 자신이 나무를 보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나무를 느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특히 '시각적 경험'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 '슈베르트와 나무'는 저자가 '서른 여섯에 처음으로 나무를 본'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여지와 함께 한 특별한 나무 체험을 담담히 써내려간 책이다. 숙명여대와 미국 피바디 음악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김여지씨는 두 살 때 시력을 잃었다. 그녀는 항상 시각장애인 안내견 '찬미'와 함께 무대에 오른다. 그

어린이 책

▲나는 우리 집 과학왕=초등 과학 교과 관련 흥미로운 소재들로 즐거운 과학 세계로 안내하는 그림책. 친숙한 전화기, 텔레비전, 냉장고부터 수도꼭지와 물, 난방시설,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기기들의 특징과 작동 법, 그 도구가 없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떻게 기기가 변해 가는지 또한 그림으로 알기 쉽게 보여 준다. <북스토리아이·1만2000원> ▲선생님은 싫어하고 나는 좋아하는 것=감정 표현에 서툰 아이들이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대신 말해준다. 선생님도 아이에게 자신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려줌으로써 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간접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 <청어람아이·1만1000원> ▲퍼펙트 아이돌 클럽=항상 친구들한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말하는 직설녀 서영아와, 친구들이 좋다면 대



리 숙제나 간식 사 주기 등 뭐든 들어 주는 예스맨 승환이는 반에서 왕따를 당한다. 친구 사귀기에 어려움을 겪는 두 아이가 비밀 클럽의 도움을 받아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다. <주니어김영사·9500원> ▲스티맨이 알려 주는 자동차와 기차의 원리=스티맨이 등장해 아이들에게 자동차와 기차의 역사, 구조와 움직이는 원리를 재미있게 설명해 준다. 자동차의 안과 밖, 겉과 속을 구석구석 살펴보면 자동차가 어떤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지 살펴보고, 각 기관들의 이름과 역할을 알려 준다. <북나무·1만원>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제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 062-383-4987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

NPL 물건		
NO	사건번호	물 건
1	광주 2015타경 11371	모델
2	광주 2015타경 17416	근린상가
3	순천 2015타경 14423	근린생활주택
4	목포 2015타경 1551	오피스텔(주거)
5	목포 2015타경 8910[1][2]	단독주택
6	순천 2014타경 9356	근린상가
7	순천 2015타경 14058	근린상가
8	순천 2015타경 15976	근린생활주택
9	목포 2015타경 10579 [1][2][3]	근린상가
10	목포 2015타경 9821	근린상가
11	목포 2015타경 12278	아파트

믿음이가는 대부 금융사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등록번호 2016-광주서구-0021 서구청 경제과 360-7162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기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 062-382-4987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79번길